

두뇌 연기적 활동... 몸으로 진리 실현

〈불교평론〉 봄호 특집 '불교의 몸, 몸의 불교' 고찰

5명 중 1명의 여성들이 경험한 성형, 몸짱 열풍, 웰빙 트렌트, 현대 사회에 들어서 우리 몸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이런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불교에서 우리의 몸, 그리고 작금의 세태를 어떻게 봐야 할 지를 고찰 점검한 기획특집이 눈길을 끈다.

계간 〈불교평론〉 57집은 '불교의 몸, 몸의 불교'에서는 경전에서의 몸에 대한 관점, 수행과정에서의 몸의 변화와 질병에 대처하는 불교의학 방법론, 성형문화에 대한 불교적 시각 등 5편의 논문을 특집으로 다뤘다.

허우성 불교평론 편집위원장은 '뫼터의 몸도 몸이다'라는 권두언을 통해 "몸으로 진리를 실현한다"는 사유에서 우리의 감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대한 불교의 성찰은 깊고도 넓다. 욕망이 차오르는 것도 몸이요, 열반하는 것도 몸이니 몸이 전부라는 말은 여전히 진리다"고 말했다.

조광재 철학아카데미 운영위원은 '몸의 형이상학을 위한 서설'에서 몸에서 인식 작용의 핵심인 두뇌활동이 연기적 활동으로 진행된다고 고찰했다. 조 위원은 "몸은 의식의 바탕이 되는데 몸의 자성을 중시하는 존재론적인 면이나 몸의 대타성을 중시하는 인식론적인 면에서 모두 두뇌의 의식

이 근거가 된다"며 "침없는 의식의 흐름 속에 두뇌와 우리의 몸은 가스성으로 변화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이러한 과정은 인식과 존재의 구분을 넘어 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에 따라 몸이 갱신되며 새롭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런 구조는 마치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며 연관성을 강조했다.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불교에서 몸이란 무엇인가' 논문에서 서양의 체현주의와 불교의 몸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며 최근의 불교연구에서도 몸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일부 연구자들은 초기불교를 몸을 부정하고 마음만을 중요시하는 가르침으로 오해한다. 또 초기불교 교리체계를 새로운 유형의 형이상학적 기호로 간주한다"며 "부처님은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일체의 논의를 출발했고 경험적으로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방편을 펼쳤다. 분별력을 삶에서 끌어내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실현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초기불교는 삶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부딪히는 상황에 대한 해법이 있다"며 "초기불교의 몸, 그리고 체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인지과학으로 무장한 체현주의가 새로운 회론으로 흐름 가능



〈불교평론〉 특집에서 학자들은 불교가 정신뿐만 아니라 몸을 다스리는 종교이며 시대흐름에 맞춰 몸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룡 선문대 통합의대학원장도 '수행에서의 몸' 발표를 통해 몸은 해탈에 이르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 대학원장은 "수행에 있어서는 몸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인식이 동시에 작용한다"며 "몸의 긍정적 인식을 높게 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규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교수는 '몸, 질병 그리고 불교의학' 논문에서 불교에서 의학을 열린 시각으로 수용했음을 들고 불교 전개에 따른 불교의학 발전상을 소개했다.

양 교수는 "인도의학의 완성한 바바파의 (아스파), 티베트의학의 (사부의전)은 불교라는 사상적 매개체를 통해 몸과 마음의 유기적 관계를 인식해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

질병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길이 되며, 몸과 마음 모두의 건강을 다루는 생명의 지식으로서 불교는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이어 "현대의학 또한 몸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치유에 관심을 갖는 만큼 불교계가 관련 산업과의 연계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여성단체 가배울 대표는 '성형 요구하는 현대문화와 불교' 논문에서 "하근기 대중들이 성형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 또한 불교적 자세다. 하지만 성형에 앞서 다른 방법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는 등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교계가 성형문화와 성차별문화, 외모지상주의 등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보물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3월 6일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機張 長安寺 石造釋迦如來三佛坐像)'을 국가 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17세기 중엽 경에 활약한 녹원(鹿元) 스님이 수조각승을 맡아 1659년 제작한 것이다. 삼불좌상은 경주 일원에서 출토되는 연질의 돌인 불석을 자재로 중앙 석가여래와 좌우에 약사불, 아미타불로 구성되었다.

불상은 조성연대와 작가가 밝혀져 있어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17세기 중·후반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덕현 기자

인도철학회·금강대 공동 학술세미나

'불성은 영성인가' 주제로 3월 28일 금강대 본관에서

인도철학회는 3월 28일 오후 1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금강대 본관 사이버강의실에서 춘계 인도철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김호성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 발표에서는 스마츠모토 시로 교마자와대학 교수의 '불성과 영성', 스황용식 원광대 교수의 '불성·영성 논의의 다면

적 함의와 과제' 발표가 진행된다.

김성철 금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스타태승 위덕대 교수의 '후기 중관사상에서 본 불성과 영성' △류제동 성공회대 교수의 '여래장 사상의 영성적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하유진 금강대 교수의 '불성과 영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미술사연구소 박물관대학 미술사강좌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고려불화'를 주제로 2014년 1학기 박물관대학 미술사강좌를 개최한다. 박물관대학 미술사강좌는 3월 1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진행된다. 강좌에서는 한국 불화의 대가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김정희 원광대 교

수, 김창균 동국대 교수, 김현정 동국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고려불화의 특징과 화사, 발원자 및 제작 성격 등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고려불화 중 아미타불화, 관경변상도, 약사미륵변상도, 수월관음도 등이 매 강좌 주제로 진행된다. (02)3673-3426 노덕현 기자

문화재 관리 전문가, 불교계가 키워낸다

문화재청·불교계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양성 MOU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불교계와 손잡았다. 한국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의 관리 현장에서의 실습능력을 배양해 전문가를 키워낸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봉건)와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덕문),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전문연구과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3월 3일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재 학술연구 또는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기초간 연구자문과 기초연구 지원 △학술연구 강화를 위한 상호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대학원 전문연구과정은 전통문화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학생이 연구자로 현장 실무자로서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문화재 현장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육성에

다. 대학원생의 현장 감각과 적응력 향상, 취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국내 대학원 최최고의 장기 실습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생들은 전국 사찰의 성보문화재를 조사, 발굴, 보존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불교중앙박물관과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유산분야 최고의 '맞춤형 전문인력'을 활용하게 된다.

한편, 이번 협약을 맺은 불교중앙박물관은 각 사찰에서 보관하기 힘든 성보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전국 사찰에 소재한 성보박물관(33개소)을 대표하고 있다.

이와함께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과 함께 '전국 사찰 문화재 일제조사', '전국 사지조사', '사지 발굴' 등 전국 사찰 2700여곳과 폐사지 5000여곳에 소재한 불교문화재를 조사·발굴·보존하는 국내 유일의 불교문화재 전문 연구기관이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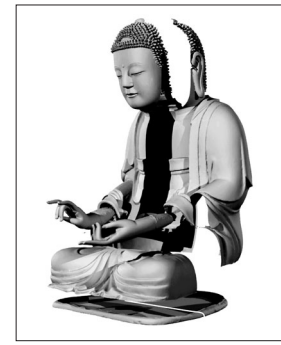
'재난' 대비해 문화재 첨단 기록화 추진

올해,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15점 조사 시행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도난, 화재 등 문화재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고자 3D 정밀스캐너, 초음파장비, CT촬영기, 산업용 내시경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훼손 위험이 큰 불교계 성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록화사업은 인문학자 조사, 디지털 정보구축 조사, 보존과학적 조사로 진행된다. 올해는 국보 제282호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국가지정문화재 15점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인문학자 조사를 통해서 해당문화재와 사찰의 크기와 특징 등 문헌 연구 자료를 수집·분석해 정확한 현상을 파악한다. 또한 3D 스캔을 통해 문화재의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디지털 정보구축 조사를 시행한다.

보존과학적 조사는 재질과 안료분, 손상조사, 비파괴 안전진단을 위해 초음파·방사선·내시경·CT촬영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개별



흑석사 불상 3D 스캔 결과도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동산 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2006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범종 75점, 소조불 39점에 대해 조사를 시행한 바 있고, 2012년부터는 외부 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목조불, 철불 등 불상 22점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조선왕조 의궤 오대산사고본(五臺山史庫本)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전시 활용을 위해 최초로 실물 그대로의 형태인 영인본(影印本, 복제한 책) 제작을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예연구소, '불교문예연구' 제2집 발간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최근 '불교문예연구' 제2집을 펴냈다.

'불교와 상담'과 '법화와 밀교'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논집에서는 '불교와 상담'에서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의 '불교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신승철 큰사랑노인병원의장의 '불교상담치료에서 치료사의 자세' △정미숙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아우르베다 상담과 불교상담의 상관성 연구' △권경임 복지영성연구소장의 '불교사회복지의 영성적 접근에 관한 일고찰' △최현주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의 '정찰선악업보경'에 나타난 마음행감과 상담의 상관성 고찰 등 5편이 실렸다. 또 '법화와 밀교'에서는 △차차석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법화사상과 밀교, 그 교류의 가능성' △정성준

동국대 강사의 '천태교학과 밀교의 관련성 고찰' △이성운 동국대 강사의 '법밀종 의례 정비에 대한 제언' 등 3편이 수록됐다.

특고 논문으로는 △오경우 한국불교 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조선 후기 수취체제(收取體制)와 불교' △김경진 위덕대 교수의 '한국 현대불교의 개혁 운동' △오은주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의 '유마경에 나타난 정토사상' △서용성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의 '템플스테이에 마음치유에 미치는 영향' 등 4편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산소제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면) 8cm]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시은품: 희담석합장주 (남개) 1만원
- 크기: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